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와하비즘과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 극단주의의 근원

주요 동향

◇ EU, 對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1.29)

- 현재 시행중인 對러시아 제재는 금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며 9월까지 6개월 연장(1.29)
 -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이 격화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1.26)
- S&P,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합 수준인 'BB+'로 강등,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1.26)
 - S&P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18년까지 연간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작년 4월 이후 9개월만에 신용등급 강등
 - 이에 앞서 피치(1.9)는 'BBB'에서 'BBB-'로 무디스(1.16)는 'Baa2'에서 'Baa3'로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그리스, 시리자(Syriza) 당의 총선(1.25) 승리로 Grexit 우려 증가

- 시리자 당은 총선결과 총의석 300석중 149석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그리스 독립당(13석)과 연정 구성
 - 연정을 구성한 두 당은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에 모두 반대하며 국유자산 매각 중단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반긴축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트로이카와의 협상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신정부의 반긴축 행보로 그리스 금융시장 불안 증대
 - 선거이후 그리스 주가는 12.7% 폭락하며 '12년 재정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CDS 프리미엄(5년)은 421bp급등한 1,585bp 기록
- ※ 주가지수 : 840.4(1.23) → 813.5(1.26) → 783.5(1.27) → 711.1(1.28) → 733.6(1.29)
 CDS 프리미엄(bp) : 1,164(1.23)→1,271(1.26)→1,519(1.27)→1,680(1.28)→1,585(1.29)

주요 동향

◇ 세계은행, 유가하락으로 중동 산유국 경제 위축 전망

- 세계은행, 올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 65달러를 유지할 경우 산유국들의 석유 순수출 및 재정수지가 GDP의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석유 순수출이 쿠웨이트의 경우 GDP의 16.2%, 사우디아라비아 8.2%, UAE 9.6%, 이라크 14.1% 감소 추정

	석유 순수출 변동		재정수지 변동	
	금액 (백만US\$)	GDP (%)	금액 (백만US\$)	GDP (%)
쿠웨이트	-30,051	-16.2	-40,050	-21.9
사우디아라비아	-63,082	-8.2	-103,114	-15.1
UAE	-39,440	-9.6	-41,655	-10.0
이란	-17,739	-4.4	-8,648	-1.9
이라크	-34,894	-14.1	-34,504	-14.9

◇ 미연준,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속 금리인상 수순 시작

- '금리인상까지 인내심을 갖는다(be patient)'는 표현은 유지되었으나,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금리 정상화를 위한 수순 시작
- 경기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강한(solid)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 강한(strong) 고용증가와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 중

◇ 한국, 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무역수지 55억달러 흑자

- 유가급락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감소, 러시아 및 EU 지역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 ※ 품목별 : 선박(63%), 컴퓨터(15%), 반도체(14%), 자동차(-4%)
 - ※ 지역별 : 미국(15%), 중국(5%), 일본(-19%), EU(-23%)

①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1. 23	'15. 1. 30	전주비
₩/US\$	1,088.5	1,084.1	1,093.5	9.4
₩/100¥	910.12	916.1	928.3	12.2
CNY/US\$	6.2020	6.2279	6.2475	0.0196
¥/US\$	119.09	118.34	117.80	△0.54
US\$/€	1.2174	1.1334	1.1338	0.0004

②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1. 23	'15. 1. 30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2.03	1.97	△0.06
미국 국채(10년)	2.17	1.80	1.64	△0.16

③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1. 23	'15. 1. 30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1,936.09	1,949.26	13.17
미국 DJIA	17,823.07	17,672.60	17,164.95	△507.65

④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1. 23	'15. 1. 30	전주비
BDI 지수*	780	720	608	△112
HRCI 지수**	538.1	557.7	549.4	△8.3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US\$/배럴)

유 종	'14년말	'15. 1. 23	'15. 1. 30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45.59	48.24	2.65
Brent유 현물	57.33	48.79	52.99	4.20
두바이유 현물	60.11	45.51	46.76	1.25

- ◆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공격이 전 세계적인 충격파를 낳고 있는 바, 이슬람 극단주의의 뿌리인 와하비즘과 그 배후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코자 함.

1. 와하비즘(Wahabism) : 교조주의적 이슬람 복고주의

- 18세기 아라비아 半島에서 출현한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이자 사회·정치운동
 - 살라피야(Salafiyya,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슬람 보수주의 운동을 지칭
 -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의 이념적 기초이자 근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
 - 이슬람 문명의 주요 성지들을 방문하면서 18세기 이슬람 사회의 병폐를 직접 경험한 무함마드 압둘 와하브(Muhammad ibn Abdul Wahab, 1703-1792)가 1745년 창시
- 이슬람 근본 교리로의 회귀 주장
 - 와하브는 이슬람 신학 4대 학파의 하나인 한발리 학파의 추종자 : 타우히드(Tauhid, 유일신론)의 엄격한 교리를 실천하고 설교
 - 18세기의 아라비아 사회를 이슬람 이전 시대(7세기 이전)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로 인식
 - 당시 이슬람 사회가 낙후한 것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근본교리와 경전인 쿠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1)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행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쿠란의 자구(字句) 해석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교조주의

- 인간과 신 사이에 중개자가 있다는 믿음과 이슬람 신비주의 등을 전면 배격하고, 쿠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실생활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교조주의를 설파
 - 성물(聖物)·성도(聖徒) 숭배, 음주·도박·춤·흡연, 화려한 치장 등 엄금
- 와하브가 주장하는 이슬람 교리에 '의심 또는 주저함'을 보이는 사람은 '목숨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선포 : 시아파, 수피즘 등 다른 이슬람 분파를 '非이슬람'으로 규정

2. 세계 각지의 광신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모태

□ 와하비즘의 핵심 : 탁피르(takfir, 무슬림의 파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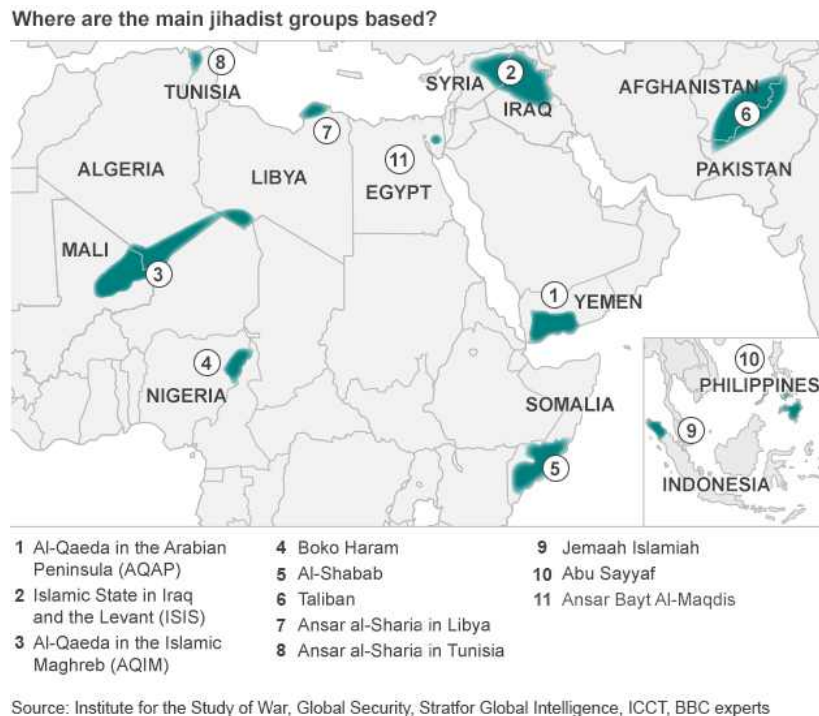
- 와하브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어느 무슬림이든 '주체의 완벽한 권리'(예를 들어 왕)에 대적하는 자를 '신앙심이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개념 : 자아도취적 광신의 표명
- 무슬림들은 오로지 한 명의 무슬림 지도자(존재한다면 칼리프)에게 자기의 충성을 맹세해야 함
 - "이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마땅하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훼손을 당해야 하며, 그의 모든 소유를 압수해도 좋다."

□ 극단적 교리로 인해 아랍 세계 내에서도 지역적 한계

- 와하비즘이 이슬람 부흥운동과 무슬림 각성의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나, 아랍 세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아라비아 半島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
 - 지나친 보수성, 극단적으로 편협한 종교관, 과격 행동주의가 원인
- 1964년 즉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국왕은 와하브 교단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교단은 그 대가로 사우드 왕가의 통치를 지지하면서 와하비즘은 더욱 극단적인 운동으로 변질

□ 非아랍권으로 침투 : 세계 각지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모태

- 와하비즘은 여타 아랍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이슬람 국가에 영향
 - 이 과정에서 현지의 관습과 결합하여 본래의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
- IS(이슬람국가)를 위시한 이슬람 과격주의 조직들은 거의 100% 와하비즘을 추종하는 수니파
 - 알카에다 및 그 분파들, 탈레반(아프가니스탄), 제마 이슬라미야(인도네시아), 알-샤바브(소말리아), 보코 하람(나이지리아) 등



3. 사우디아라비아 : 와하비즘의 총본산

□ 알 사우드 가문, 와하비즘을 이용하여 헤게모니 장악

- 극단적인 과격성으로 고향에서 추방된 와하브는 1741년에 이븐 사우드와 그 부족의 보호 아래 들어감
 -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선조인 이븐 사우드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를 무대로 베두인족을 습격하며 연명하던 일개 부족의 족장

- 이븐 사우드는 와하비즘을 이용, 아랍의 전통과 관습을 뒤집고 아라비아 반도의 헤게모니 장악을 획책
 - 이븐 사우드와 야합한 와하브는 '지하드(聖戰)를 위한 순교'의 개념 재생성 ⇨ "이를 위해 순교하는 이는 곧바로 극락을 가게 될 것"
- 이븐 사우드는 현재의 IS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여 세력 확장
 - 지하드를 구실로 침략하여 극단적인 공포를 조장 : 점령지 주민들은 와하비즘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몰살
 - 1746년 다리아를 수도로 사우드 왕조 창건 ⇨ 1790년대에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장악 ⇨ 1803년 메카 입성
- 당시 아랍 세계의 지배자인 오토만 투르크의 반격
 - 1812년 메디나, 제다, 메카 점령 ⇨ 1818년 다리아 점령

□ 와하비즘의 부활과 변모(또는 위장)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수립

- 이븐 사우드 압둘아지즈(Ibn Saud Abdulaziz,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의 등장
 - 분열된 베두인족을 통일, '이흐완'(Ikhwan)이라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슬람 전사 조직을 결성 (오늘날 IS의 모델)
 - 1914~26년 메카, 메디나, 제다 재점령 ⇨ 자발 삼마르 토후국(1921년), 헤자즈 왕국(1926년) 정복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국(1932년)
 - 압둘아지즈는 이흐완 내의 과격파를 경계하여 억압 ⇨ 이흐완의 반란으로 1927년 내전 발발, 1930년 종결
- 와하비즘, 국가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 세련된 형태로 위장
 - 1938년 아라비아 반도의 다란(Dharan)에서 석유 발견 ⇨ 석유 생산을 주도하며 아랍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보다 세련된 외교정책 필요
 - 그 결과 와하비즘은 지하드와 탁피르에서 사회·정치·종교적 보수성을 지향하는 다와(da'wa, 이슬람의 가르침), 왕실에 대한 충성, 왕의 전폭적인 권한을 지지하는 체제로 위장

4. 와하비즘, 오일 달러로 날개를 달다

-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을 전체 이슬람 세계에 전파코자 시도
 - 오일머니로 축적한 막대한 국부(國富)를 와하비즘 전파에 투입
 -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신도를 와하비즘 아래 하나로 묶는 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절대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
 - : 수조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각지에 마드라사(이슬람 신학교) 설립,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와하비즘 교리 전파
- 서방은 공산주의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와하비즘 세력 지원
 - 서방은 막대한 투자에 의한 소프트파워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니파 이슬람을 운용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에 넘어감
 - 와하비즘은 교육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슬람 세계에 확산
 - 서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反공산주의, 나세르주의(아랍 민족주의) 억제, 反소련, 反이란 입장을 지지
 - 사상적 배경인 와하비즘을 외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와 현대화, 왕족의 지배력에만 초점
 -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몰아내고 이란의 反서방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 과격 근본주의 세력 이용 : 빛나간 이이제이(以夷制夷)

5. 향후 전망 : 이슬람 극단주의와 와하비즘의 운명은?

- IS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수니파 중동 국가들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태도
 -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IS를 은밀히 지원
 - 와하비 고위 성직자, 왕족, 기업인 등은 IS의 공공연한 재정적 후원자
 -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IS의 공격을 내심 반기는 입장이며, IS로부터 원유 밀수입 중

-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냉전시대에 구소련과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이용 ⇨ 이슬람 극단주의의 다음 표적은 바로 그들 자신
-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 확장은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自業自得

□ 와하비즘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IS는 계속 등장할 것

- ‘중세 시대의 화석’이라 할 종교적 극단주의는 이슬람 세계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
 - 종교적 극단주의를 내세운 권력욕, 성차별적 소비니즘, 물질적 탐욕의 결합 ⇨ 가장 파괴적인 결과
-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IS의 아류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
 - 너도 나도 IS를 모방하여 칼리프 국가 선포 추세 ⇨ 특정 지역에서 아류끼리의 세력 다툼과 충돌 가능성
 - : 중동은 물론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지역 불안정 악화 우려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을 우려, 와하비즘 확산을 후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치
 - 서방은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투입을 계속 배제하는 등 중동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도, 능력도 결여된 상태
 - : 시작부터 잘못된 서방의 중동정책은 현재 진퇴양난(進退兩難)

확인자	소장 임병갑
작성자	팀장 오경일

<참고자료 1>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역대 국왕

사진	이름	생몰(生沒)	통치기간	초대 국왕과의 관계	특기사항
	초대 압둘아지즈 (Abdulaziz)	1876.11.26 ~1953.11.9 (76세)	1932.9.22. ~1953.11.9.	본인	공식 부인 22명 공식 아들 45명
	2대 사우드 (Saud)	1902.1.12 ~1969.2.23 (67세)	1953.11.9. ~1964.11.2.	둘째 아들	파이잘에 의해 강제 퇴위함
	3대 파이잘 (Faisal)	1906.4 ~1975.3.25 (68세)	1964.11.2. ~1975.3.25.	셋째 아들	와하비즘 강화, 조카에 의해 암살됨
	4대 할리드 (Khalid)	1913.2.13 ~1982.6.13 (69세)	1975.3.25 ~1982.6.13	다섯째 아들	
	5대 파흐드 (Fahd)	1921.3.16 ~2005.8.1 (84세)	1982.6.13 ~2005.8.1	아홉째 아들	"수다이리 7형제" 중 첫째 아들
	6대 압둘라 (Abdullah)	1924.8.1 ~2015.1.23 (90세)	2005.8.1 ~2015.1.23	열두째 아들	
	7대 살만 (Salman)	1935.12.31 출생 (현재 79세)	2015.1.23 왕위 계승	스물다섯째 아들	"수다이리 7형제" 중 여섯째 아들

* 압둘아지즈 왕의 8번째이자 가장 총애받은 부인인 하사 빈트 아흐메드 알 수다이리(아라비아의 강력한 부족들 중 하나인 수다이리 부족의 족장의 딸)가 낳은 7명의 왕자들 :

1. 파흐드 국왕(King Fahd, 1921-2005)
2. 술탄 왕자(Prince Sultan, 1929-2011) : 국방장관(1962-2011), 왕세제(2005-2011)
3. 압둘 라흐만 왕자(Prince Abdul Rahman, 1931-) : 국방부 장관(1978-2011)
4. 나예프 왕자(Prince Nayef, 1934-2012) : 내무장관(1975-2012), 제1부총리 겸 왕세제(2011-2012)
5. 투르키 왕자(Prince Turki, 1934-) : 국방부 장관(1968-1978)
6. 살만 국왕(King Salman, 1935-)
7. 아흐메드 왕자(Prince Ahmed, 1942-) : 내무부 장관(1975-2012), 내무장관(2012)

<참고자료 2>

IS가 2019년까지 점령하여 칼리프 국가를 세우겠다고 선포한 지역 (검은색 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포하는 "세계지도" :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이슬람화

THE MAP OF UNITED STATES OF ISLAM
 THE DREAM OF 20th CENTURY MUSLIMS WILL BE REAL IN 21st CENTURY
 BY H.G.

حدیث مبارک
جہاد فی سبیل اللہ
اللہ کی راہ میں جہاد کرو
FIGHT IN THE WAY OF ALLAH
(AGAINST THE ENEMY OF ISLAM)

القرآن
واعتصموا بحبل اللہ جمیعاً ولا تفرقوا
والتواکفوا و التواکفوا جمیعاً
AND HOLD FAST, ALL TOGETHER BY
THE ROPE OF ALLAH AND BE NOT
DIVIDED AMONG THEMSELVES.

PLEASE MORE PRINT AND
DISTRIBUTE AND
GET BLESSING

وحدیث مبارک
جہاد فی سبیل اللہ
اللہ کی راہ میں جہاد کرو

NAME OF STATES

1. AFGHANISTAN	20. LIBANON
2. ALGERIA	21. LEBIA
3. ARABIA	22. MALAYSIAN
4. AZERBAIJAN	23. MEXICO
5. BANGLADESH	24. MOROCCO
6. BELARUS	25. NIGERIA
7. BERMUDA	26. OMAN
8. CAMBODIA	27. PAKISTAN
9. CANADA	28. PLESTINE
10. CHINA	29. SAUDI ARABIA
11. COLOMBIA	30. SENEGAL
12. CUBA	31. SOMALIA
13. DENMARK	32. SUDAN
14. GERMANY	33. SYRIA
15. GREECE	34. TAIWAN
16. HONG KONG	35. THAILAND
17. HUNGARY	36. TURKEY
18. INDIA	37. U.S.A
19. INDONESIA	38. UZBEKISTAN
20. JAPAN	39. VIETNAM
21. JORDAN	40. YEMEN
22. KAZAKHSTAN	
23. KENYA	
24. KUWAIT	

OTHER THAN STATES ISLAMIC COUNTRIES:

41. ALBANIA	53. INDONESIA
54. BRAZIL	65. SAUDI ARABIA
66. BOSNIA	76. MALDIVES
77. SPAIN	

MUSLIM MAJORITY COUNTRIES IN NON MUSLIM COUNTRIES

DETAIL OF ISLAMIC STATES

CAPITAL: SAUDI ARABIA
HEAD OF STATE: ISLAMIC CALIPH
NAME OF CURRENCY: ISLAMIC DHAHIR
RELIGION & LAWS: QURAN & HADITH

RESULT

- ALL RESOURCES AVAILABLE IN ISLAMIC STATES
- STRONGEST ARMY IN THE WORLD
-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 ATOMIC & SUPER POWER COUNTRY
- ISLAMIC & U.S.A CAN NOT SEIZE ASSETS IN ISLAMIC STATES
- THE HEART OF GLOBE IN MUSLIMS HAND
- ONLY POPULATION OF WORLD IN ISLAMIC STATES

AFTER 100 YEARS (نتیجہ)

WORLD ISLAMIC MISSION RESEARCH DIVISION

<참고자료 3>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종교 분포도

